

광주송정역 앞 폐업 유흥가 철거... “광산구 호남 관문 개선”

장기간 방치 유흥가 건축물 정비... 주차장·쉼터 조성 66억 투입 2029년 목표... 안전·미관·상권활성화 기대

낙후된 광주송정역 주변에서 장기간 방치돼 안전·미관 문제 지적이 잇따랐던 폐업 유흥업소가 철거될 전망이다. 역 광장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인 광산구가 과거 유흥·집창촌 밀집 지역 정비에 착수하면서 송정역 일대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주변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장기간 방치된 유흥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송정역 맞은편 유흥시설 밀집 지역 내 노후 건축물 11개 동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연면적 900㎡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35면)과 585㎡ 규모의 쉼터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광산구는 토지 보상비 46억원, 건물 보상비 9억원, 공사비 11억원 등 총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실시계획에 들어가 202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대로변 어두운 거리에는 야간 조명 설치와 작품 전시 등을 통해 밝고 생동감 있는 거리 조성 사업

을 우선 추진한다.

주차장과 쉼터 조성 이후에는 공간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낮에는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지역 청년과 상인들이 참여하는 포장마차나 오픈마켓 등을 열어 서울 을지로 ‘노거리 골목’ 같은 지역 명소를 육성하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상시 버스킹 존을 설치하거나, 기존 건물 일부를 청년 예술인에게 임대해 그래피티와 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광산구는 이번 정비에 일회성 경관 개선이 아닌, 향후 송정역 일대 도시공간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송정역 건너편 일대는 과거 ‘1003번지’로 불리던 대표적인 유흥가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업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듬해 화재로 여성 2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쇠퇴했으며, 현재는 유흥업소가 사라졌지만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슬럼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KTX 투자선 지구 사업을 통해 이 일대에 ‘올드앤뉴



광주 광산구가 추진하는 광주송정역 폐 유흥가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광주광산구제공

스퀘어’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유흥업소 건물 7곳은 정비 구역에서 제외됐다. 2016년 시작된 송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종료돼 추가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송정역 이용객이 증가하며 광주 관문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역 주변 공간이 낙후돼 도시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랫동안 방치된 유흥시설을 정비해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상

권 이용자 편의 증진과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송정역 인근 노후 여인숙 거리를 정비해 역 광장을 대폭 확장하고 녹지·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역 광장이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오덕근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능력 키운다

“방학 중 보건교사가 뭉쳤다! 학교 내 응급상황 걱정마”

전남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3~4일 순천대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응급처치 실습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교사 14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단순 이론교육을 넘어 마네킹을 활용한 조별 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사용법 ▲ 상처 유형별 드레싱 방법 ▲ 인술린 주사 방법 등 실제 학교 응급상황에서

즉각 활용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돼, 보건교사의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절차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상처 및 화상 응급처치, 당뇨병·아나필락시스·천식 등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이번 연수는 전남대학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전문 강사 자격을 갖춘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 등 현



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연수가 보건교사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전남경찰청, 6·3 지방선거 수사전담팀 편성... 단속 돌입

본부·22개 일선서 167명... 첩보 수집 강화

전남경찰청은 오는 6월3일 펼쳐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남청은 이날부터 본부와 22개 일선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67명을 편성해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수수 및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나선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비롯해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지시한 이들의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고,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모상모 전남경찰청장은 “철저한 중립 자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선관위·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수선집서 ‘금품’ 빼앗고 쫓던 상인엔 흥기 ‘폭’... 영장친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수선집에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고 자신을 쫓던 상인을 흥기로 찌른 A(60대)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수선집에서 홀로 일하던 B(60대·여)씨를 흥기로 협박해 체크카드와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뒤 자신을 쫓던 인근 상인 C(20대)씨를 흥기로 찌른 혐의

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구 금호동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북구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시간만인 이날 오전 1시55분께 북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석우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